

국가연구개발 보고서원문 성과물 전담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가공·서비스 하는
연구보고서는 동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식은 패스워드와 암호화된 전자책이 동시에 유출될 경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가 출판사 또는 서비스 사업자 측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임

- 본 프로젝트 팀은 보다 보안이 강화된 보호방식이면서 공개소스 기반의 상호운용이 가
능한 SCP(Secure Content Protection)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Radium SDK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SCP는 LCP에서 키 관리 방식을 인증서 기반으로 변경하여 패스워드 유출시의 문제점
을 해결한 KS 표준방식의 DRM 임
- 2016년 1월 Radium Foundation에서는 Radium LCP가 Lightweight Content
Protection 이라는 의미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 Licensed
Content Protection이라는 의미로 변경하였음
- 국내 DRM 기술은 2000년대 초부터 상용화되어 전자책 및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장
르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협소한 시장 규모에 비해 다수의
DRM 기술들이 시장에서 경쟁함에 따라 비교적 오래전부터 DRM 호환성 해결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양한 시도와 연구들이 진행되어 해외 DRM 기술과 동등한 수준
의 DRM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전자책 DRM 호환 기술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책연구과제로 전자책
DRM 호환 기술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여 IDPF에서 추진 예정인 EPUB SCP 표준화의
기반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물은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한국정
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제정을 통해 2015년 KS 표준으로 제정되었음
- 국내 전자책 DRM 호환 기술은 이미 IDPF에 소개가 되었으며, 해외에 비해 전자책
DRM 호환기술 및 표준화에서 2~3년 정도 앞서 있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고 있음
- IDPF는 2013년부터 ISO/IEC JTC1 SC34를 통해 EPUB 3.0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Radium 표준으로 제정되면 이후 ISO 표준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열려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저작권위원회는 국내 EPUB DRM 호환기술을 IDPF 및 ISO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여 국내 e-Book 관련 산업계(e-Book 서비스 사업자, 단말기 사업자, 솔
루션 사업자, DRM 기술 제공업체 등)의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을 표준강
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